

기도하며 눈 감는다

발원 11년만에 자제병원 착공... 2012년 완공 예정

15년 전부터 호스피스·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 구축

불교호스피스는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의 자비로 보살피는 자비행이다. 국내 최초의 불교 호스피스(안화의료) 전문시설 '자제병원' 건립 불사의 첫 삽을 떴다.

정토사관자재회(이사장 능행)는 5월 29일 울주군 상북면 소재 자제병원 예정지(현 마하보다교육원)에서 기공식을 봉행했다. 2000년 '서민을 위한 불교 호스피스전문병원'의 설립을 발원한지 꼭 11년 만이다.

기공식에는 능행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및 후원회원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병원 건립에 마음을 모았다. 능행 스님은 무대에 올라 병원 건립에 뜻을 모아준 1000여 사부대중을 향해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

신했다.

능행 스님은 우리나라 대표적 호스피스실천가로 20년 전부터 소록도와 꽃동네 등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말기 암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남은 생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 왔다. 당시 스님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출가수행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며 진정한 수행"이라며 호스피스병원 건립의 서원을 세웠다.

수불 스님은 축하법문에서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수백년 전 평균수명이 40세이던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죽음을 대비해 수행하는 것이 불자의 자세로, 평소 수행을 통해 삶과 죽음이 돌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보다 평화롭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제병원은 2012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본격 불사에 돌입했다. 자제병원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일대 1만 1890㎡ 부지에 연면적 2519㎡(약 762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짓는다.

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호스피스병동과 안화의료병동, 재활병동 등 3개 병동에 70개 병상을 갖추게 된다. 시설에서는 환자를 24시간 돌본다.

특히 한평생 전법과 수행에 몸바친 노스님들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회향할 수 있도록 승가요양시설이 함께 마련된다. 각 층에는 법당도 마련돼 임종을 앞둔 불자 및 스님들이 기도도 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15년 전 부터 자제병원 부속교육기관인 '마하보다교육원'에서는 호스피스(안화의료)와 요양보



정토사관자재회는 5월 29일 불교 호스피스 전문시설 '자제병원' 건립 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호사 교육을 시행해 왔다. 임상 전문 훈련기관 '임상보다사트바(CPE)교육원'과 전문 상담지도자 양성기관 '마하보다 명상심리 대학원' 등을 통해 자제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인력불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다시 전문 의료진과 안화의료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종교팀 등 4개 팀으로 배치돼 환자의 건강과 정서, 사회적 돌봄 등을 수행한다.

병원 관계자는 "오랜 세월 호스피스현장에서 임상 경험과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인력불사는 자제병원이 세계적인 안화의료 전문병원의 대표적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자제병원 건립본부 사무국 건립기금 나눔계좌: 국민은행 713701-01-140932 (예금주 정토사관자재회) (052) 264-1007

우리지역 부나존자를 찾아서 "이주민과 함께 걷는 연습중"

중식당 실크로드 연 성원 스님



는 요청이 굉장했어요. 거제에서 유일하게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던 기관은 YMCA 뿐이었죠. 다문화 가족 대부분이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종교보다는 불교계에서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랬던 거죠."

금강사는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사찰음식을 선보이고, 직접 만든 고국의 전통요리를 소개하는 잔치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음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행사에 참가했던 다문화가족들은 금강사를 떠나지 않고, 정기법회와 불교대학에 동참하는 불자가 됐다.

"그동안 우리는 다문화가족을 도와줘야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존중받아야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도반입니다. 특별한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돼요.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4월 29일 옛 금강유치원 자리에 문을 연 음식점은 12명의 직원 중 다문화가족이 4명, 취약 계층 3명이다. 수익 중 3분의 2는 금강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 기부금으로 운영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농촌마을에 위치한 작은 절 금강사는 여럿한 복지센터 건물을 갖추고,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센터, 금강장학회와 경로무료급식, 니란다 카페와 실크로드 등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성원 스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외적인 팽창만 쫓아 겉데기 치우쳤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묻고 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경전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대중 곁에서, 어렵고 힘든 이에게는 더 큰 손을 내밀고 안아주셨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명확해집니다." (055) 634-6200

박지원 기자



"평화통일을 염원합니다"

부산북민협,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 개최

은 국민의 염원인 통일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가 불교계 대북지원단체 주도로 열렸다.

부산지역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조기중, 이하 부산북민협)는 5월 28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

원에서 제1회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2010년 12월 부산북민협 창립 후 공식 첫 행사다. 이들은 부산 시민들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단결된 남북관계 회복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걷기 출발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갈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 북민협은 부산참여불교운동본부(이사장 지원),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정여), 부산 정토회(이사장 법륜), 부산어린이여개동무(이사장 구자신, 쿠쿠전자 前 회장)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삼광사, 100만독 관음 백일기도 입재

삼광사가 '제3차 일심정진 100만 독 관음 백일기도' 수행 결재에 들어갔다.

전태종 삼광사(주지 화산)는 6월 1일 지관전에서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정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매일 5시간 진행된다. 백일기도가 끝나는 9월 8일에는 전태종 본산인 구인사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전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법어에서 "지난 2년간 100만 독

관음 백일기도는 한국 불교가 과거 승단 중심의 산중 불교를 벗어나 사부대중 중심의 대중화된 불교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했다"며 "전태종도들이 앞장서서 수행정진에 적극 동참해 한국불교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새 역사를 쓰자"고 말했다.

100만 독 관음백일기도는 2009년부터 전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박지원 기자

위빠사나로 '행복한 삶'을

여래사불교대학, 3주간 본원 스님 초청법회

부산불교교육원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중)은 5월 27일-6월 10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진행 되는 초청법회는 '불교는 무엇이

며,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박지원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연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희담석합장주(납개) 1만원
· 크기: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르긴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이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담석은 희담석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희담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